

[아프리카중동 비즈니스 정보]

가나 농업 시장 동향

가나의 농업은 주로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의 고용률 기여도가 5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산업이지만 여전히 팽이나 자루 같은 전통 농기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가나는 여전히 식량 생산을 자급자족 형태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으로 자국 농민들이 자국 소매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소매 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편이며 중산층 증가에 따라 2019년도에는 소매 지출이 11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나의 유통 시장은 전통시장이 60%로 가장 크며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나는 또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를 통해 역외공통관세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비교적 잘 개방되어 있다.

가나 농업 현황

가나의 농업은 농지의 90% 정도가 2헥타르 미만으로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나 고용 기여도는 52%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나는 아직도 팽이나 자루 같은 전통 농기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고 기계화된 농장은 거의 없으나 북부 지역에서는 황소를 이용한 농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나 식품농업부(MOFA)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식량 생산이 자급자족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운송 및 저장 시설이 없어 소규모 농민들이 자국 소매 시장에 거의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산층 증가에 따라 가공 식품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자국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가나의 식품 가공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최근 고부가가치 수입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나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의 생산량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식품 가공 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도입했으나 시설, 재정, 전력 공급 문제 등 심각한 병목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가나 농산물 유통 시장 및 무역 현황

가나의 소매 시장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최근 중산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80억 달러(약 9조 원)였던 가나의 소매 지출이 2019년에는 110억 달러(약 12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 시장은 전통시장이 60%, 편의점 및 소형 식료품점이 36%, 슈퍼마켓이 4%를 차지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수입 식품의 경우 슈퍼마켓 26%, 편의점 54%, 전통시장 20%의 비율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나 농업 시장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역외공통관세(CET) 제도 실시로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이다. 가나 정부는 전면적으로 역외공통관세를 도입해 기존의 관세는 낮추고 인쇄 식물, 가금류 및 기타 육류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3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2-2016 가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교역국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세계	2,244.4	2,262.8	1,728.2	1,545.8	1,515.7

*출처: Global Trade Atlas

가나 농산물 수입 시장 진입 유의사항

가나수입업체들은 시장의 요구 사항으로 선적 물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운송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화물혼재업자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가나에서 쉽게 재포장이 가능한지와 1회용 및 작은 사이즈 그리고 냉동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및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에서는 제조 및 유통기한 날짜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고 ‘일-월-년도’ 또는 ‘월-일-년도’로 표시해야 한다. 가나에서는 수입 식품의 유통 기한을 항구에서 통관수속을 끝낸 시점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가나농업시장동향, 2017. 7. 26

<https://www.export.gov/article?id=Ghana-Agricultural-Sectors>